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수빅 중심지역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10분정도 걸리는 자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거의 항상 FB라는 택시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규모는 기숙사 같은 크기이며 시설은 다소 낡고 수리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러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교나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다들 즐겁게 지내다가 갔습니다.</p>
수업	<p>수업은 오전에 8시~11시50분까지, 오후에 1시~4시50분까지 각 50분씩 총 8개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1:1수업 4개, 그룹수업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반에 레벨테스트 후 수준별로 수업이 배치됩니다. 쉬는 시간은 각 10분씩 있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쉬고 오기도 힘들고 마땅히 쉴 공간도 없어서 이점이 힘들었습니다. 수업은 수준별로 나눠준 책에 따라서 수업을 나가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의 능력과 성격에 따라서 진도는 상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주로 책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프리토킹을 하면서 선생님과 토론/토의를 하였습니다. 이외로 생각이 맞고 깊으신 선생님들도 계셔서 저는 철학, 과학 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과제도 학생과 선생님의 제량에 따라 다른데 보통 숙제는 거의 없고 또, 학생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내주지 않는 편입니다. 연습, 복습은 단어공부 외에는 할 것이 없어서 수업 이후에는 편하게 자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중에서 몇몇 분이 발음이 필리핀 언어인 따갈로어 억양을 심하게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추후에 선생님을 교체하고 싶다고 하면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식 발음으로 영어를 배워서 처음에 선생님들 발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듣기 평가와 스피킹 발음에는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p>

Activity

- 수빅 투어 : (첫 번째 주) 비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바다까지 오래 걸어야 되는 일정으로 상당히 피곤하고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subic bay라는 바다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고기메뉴를 주로 시켰고 대부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현지 음식보다는 약간 한식 스타일의 메뉴를 시키면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 안바야 리조트 : (두 번째 주) 필리핀에서도 부유층들이 간다는 리조트에 갔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시설도 4개의 팟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우리가 쓸 만한 장소는 2곳) 수영장 앞에는 해변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도 필리핀 음식이 대부분 짜서 먹기 힘들었는데 이곳은 한국인 입맛에 적당하게 잘 되어 있어서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음식을 먹을 때 결제를 30명이서 카드 2개로만 해야 되었기 때문에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했던 리더는 불편함이 컸고, 학생들도 자유롭게 음식을 시키지 못해서 그러한 면에서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또한, 수영장에서 수영복 없이는 이용이 불가하니 수영복을 가져와야 하며 일인당 개인적으로 700페소(14000원) 정도 사용 했습니다
- 마닐라 투어 : (세 번째 주) 사실상 저는 마닐라에 3번째로 갔었던 것이라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닐라에 대하여 더 잘 알기에 불만족스러운 점이 비교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 마닐라의 전쟁, 독립 역사와 관련된 곳을 많이 방문하였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그러한 배경지식을 전혀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필리핀도 한국과 같은 아픈 식민지의 배경이 있고 위대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한 본질적인 설명은 전혀 없이 장소를 옮기며 사진을 찍는 미션에만 치중하여 이곳에 왜 왔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땀별에 오래 걸어 다니며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에 간 곳은 아시아에서 2번째로 큰 SM asia mall이었는데, 사실상 모든 아이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대부분 카페에서 가만히 쉬기만 했습니다. 가져가야
- 바비큐 파티 : (네 번째 주) 원래 요트투어 일정이 되어있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전면적으로 다 취소되고 평일 오후에 바비큐 파티를 잡았습니다. 고기는 저희 개인적인 사비로 충당해야 되었고 (일인당 약 400페소 = 8000원) 푸짐한 양에 맛있는 고기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여름에는 우기시즌이라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옵니다. 수시로 내렸다가 그치고를 반복해서 외출 시에는 항상 우비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또한 제가 있던 시기에 큰 태풍이 불어서 5일 정도는 외출을 못했었는데 그때 당시 천둥번개가 엄청 치고 학교 부근에서 산사태가 나서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래 지역은 홍수가 나서 잠기는 등 날씨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습했으나 사실상 기온은 한국보다 덥지는 않아서 나쁘지 않게 지냈습니다. 겨울에는 건기시즌이라니 좀 나올 것으로 봅니다.</p>
안전	<p>계엄령이다 머다 하면서 필리핀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았으나 수빅은 그러한 위험 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한국과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시설은 전반적으로 낡은 건물이고 첨단 시설은 하나도 없지만 나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도 매일 해주셔서 쾌적했고 불편사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와이파이가 너무 자주 끊기는 와중에 데이터를 사서 써도 나라 특성상 데이터도 연결이 잘 안되어 답답했습니다. 물도 가끔 노란 물이 나올 때가 있었으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세탁물에서 흰옷과 수건이 노랗게 물들어서 버리고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서 수업하는 교실이나 방에서나 시끄러웠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급식은 가끔 필리핀 간식이 나오고 주 메뉴는 한식위주로 잘 나왔습니다. 메뉴와 맛이 좋아서 저는 많이 잘 먹었습니다. 다만 아침에 빵이 너무 자주 나오는데 식사로는 빈약하여서 아침은 잘 안 먹었습니다. 저녁은 주로 밖에서 친구들과 사먹었는데, 급식이 맛있긴 했지만 밖에서 외부 음식도 싸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거의 항상 친구들과 나가서 먹었습니다.</p>
교통	<p>학교에서 중심부로 가기 위해서 FB라는 택시와 버스느낌의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학교에서 sending service를 제공해 주어 매일 10명 정도는 무료로 외출을 할 수 있었으나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대부분은 대중교통</p>

을 타고 나갔습니다. 택시비는 일인당 약 30페소(600원) 정도로 잡아서 타고 콜을 부르면 100페소가 더 추가되는데, 콜을 부르면 30분은 걸려야 와서 대부분 버스(?)를 타고 외출했습니다. 버스는 14페소(280원)로 저렴하게 이용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368,610	300달러+추가30달러 (주로 식비, 사파리 입장료 600페소, 집라인 500페소, 기념품 등등..)
합계	1,095,610	

5. 출국 전 준비사항

전체 친구들과 사전에 미리 모여서 만남을 몇 번 가진 후에 출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처음 만났는데 아무도 몰라서 필리핀에서 친해지는데 오래 걸렸을 뿐더러 다 같이 친해지지 못하고 그룹으로 몇 명씩 나누어져서 친해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웠고, 4주라는 기간이 짧아서 거의 매일 저녁에 외출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싸지만 괜찮은 한국음식 다운 음식을 먹으려면 결국 한국비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환전은 넉넉히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빅에 쇼핑몰 말고도 사파리, 아쿠아리움, 집라인, 수상스키, 카누, 레저 등등 찾아보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주어지는 자유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비티 비용은 한국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돈은 넉넉히ㅠㅠ

여름에는 비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접이식 우산을 가져오는 게 좋고, 짐이 많다면 쇼핑몰에서 사셔도 됩니다. 대부분 생활용품은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현지에서 다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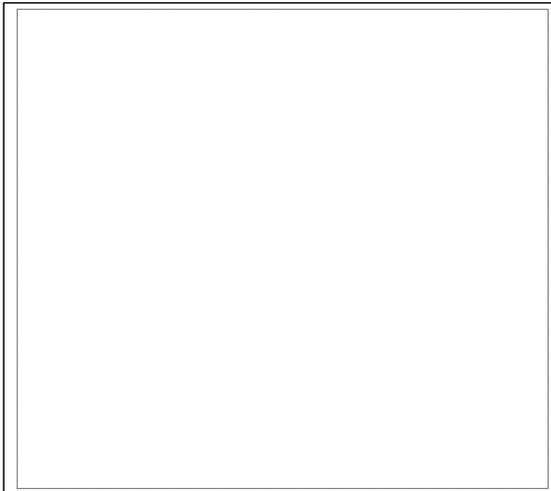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사실상 한 달이라는 기간이 영어 실력을 월등히 높이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에 돌아와서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영어 공부의 좋은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회화에 어느 정도 능숙해서 큰 도움은 받지 못했지만, 영어 말하기와 듣기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영어공부 뿐만 아니라 영어 선생님들과도 친해져서 한국에 와서도 꾸준히 연락하여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양하고 많은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여학생 리더로 역할을 맡았었는데,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나름 소중한 경험이고 추억이었습니다. SLC에 여러 명의 매니저 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다들 비슷한 나이 때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하고 서로 친해지며 도왔으면 더 원활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남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비해 후진국이다 보니 여러 생활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으로서 즐기면 한 달 동안 원활히 지낼 수 있습니다. 벌레가 많이 나와도 우습게 넘어가고, 와이파이가 안돼도 필리핀의 문화화 환경을 이해하면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4주 동안 지내면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얼굴을 맞닿고 지내는 시간들이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다가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돌이켜 보면 하루하루가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에 감기-물갈이-감기를 반복하면서 항상 몸이 안 좋았던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아파서 수업을 몇 번 빠지고 친구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해서 사실 귀국 날에 한국에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기에 감정 기복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더 깊은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친해친 현지인 선생님들과 꾸준히 연락을 하며 친교를 이어갈 것이며 한국에 오면 함께 여행하기로도 약속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시행하는 1:1 스피킹 프로그램이 있어서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더 많은 영어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내가 한국말을 할 때면 이 한국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 할까?를 생각하는 시점이 영어 실력을 쌓는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서 하는 공부보다 내가 재미를 느껴서 배우고 싶은 공부가 재미있고 기억에 남기 때문에, 본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하면서 모두가 배움에 대한 흥미가 생겼으면 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팀원들과 마닐라 투어</p>	<p>안바야 리조트</p>
	
<p>친구들과 함께 zip line (SLC에서 걸어서 5분 거리)</p>	<p>친구들과 함께 Zubic safari (SLC에서 차로 15분 거리)</p>
	
<p>마지막 수업</p>	<p>MMC contest에서 광고 1등, MV 2등</p>